

*경배와 찬양	입례 / 주 나와 함께 하시니 / 시편 139편 예배하는 이에게 /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같이
대표기도		오세원
*성경봉독	민 13:1-2, 26-33	김민석
말씀	태산 같은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 응답찬양

###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품안에서  
내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웃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영혼 평안해  
내똥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 태산 같은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민 13:1-2, 26-33)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 26 그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했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 주었습니다. 27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 거기서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28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큼니다. 게다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29 네게브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30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31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32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33 우리가 거기서 네페림, 곧 네페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로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 불리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열 두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중 열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결과는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되는 실로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먼저, ‘문제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문제를 주실 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는 나를 바로잡으시기 위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새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회전문 원리)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나쁜 의도로 인한 문제나, 자연법칙, 우연, 실수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문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공통된 것은 그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 **우리 하나님은 다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가데스 바네아: 믿음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함.

그 다음은, ‘회개함’으로 정결해져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생각나는 모든 죄를 자백함으로 영적으로 정결함을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죄가 남아있으면 사탄이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면 자칫 문제를 잘못 분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크리스찬은 회개함으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가데스 바네아: 회개치 않고 오히려 불신의 범죄를 저지름.

그 다음 스텝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경말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문제가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폭풍 속에서도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에 민감하시면 됩니다. (밤바다의 항해자)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려면 금식기도, 정시기도, 말씀읽기, 찬양 등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가데스 바네아: 기도도, 예배도, 언약도 붙잡지 않음. 백전 백패!

그 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큼니다. 기도의 양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과녁을 맞추는 기도)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는 앞서 분별한 하나님의 방향성을 근거로 확신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 질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외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있는 기도입니다. 혹시 “해 주실까?” 가 아니라 “해 주실 것을 내 삶에 투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 11:24)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 팀을 구성하시기 권장합니다. (마 18:19)

\* 가데스 바네아: 만약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기도팀을 구성해서 기도했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 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인내하십시오. 기다릴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평안은 믿음 안에 있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 가데스 바네아: 조급함으로 원망과 불신에 빠짐.

우리 AKPC Psalm 공동체가 믿음으로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능력있는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 묵상을 위한 질문

1. 내 앞에 직면한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은, 과거에 내가 경험한 큰 문제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2. 나는 그 문제를 대할 때 오늘 말씀에 입각해 볼 때 어떤 부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반대로,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해 보겠다고 결단한 내용은 있으신가요?

설교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부 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파송찬양

###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훈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목자 및 팀장 임명

목자 : 이윤진, 이지영, 전승엽, 전춘우, 전하영, 조윤, 최효은, 하지수  
팀장 : 박사론(새가족팀), 박정호(예배팀), 안혜성(미디어팀),  
오은비(라이드팀), 정재인(기획팀), 조하영(찬양팀)

## 2022년도 AKPC 장학생 선발

대상 : 일반대학/대학원생 또는 신학대학/대학원생  
- 접수: 교회 홈페이지(akpc.org)를 통해, 10월 23일(주일) 마감  
- 문의: 장학위원회 (akpc.scholarship@gmail.com)  
- 지정현금으로 장학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현금 QR

## Awake 개강예배

9월 19일(월) 6:30PM, WCP Auditorium 1.402



SEPTEMBER 19, 2022 | 6:30PM  
WCP AUDITORIUM 1.402  
@ | @awake\_utaustin  
@ | UT AWAKE WORSHIP

## 김상범 목사님 심방

김상범 목사님께서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심방하십니다.  
가능한 날짜, 시간을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Zoom, 대면 심방 모두 가능합니다.

심방신청 바로가기



## 팀원 모집

찬양팀 - 건반, 베이스기타 (문의: 조하영)  
예배팀 - 카메라 및 자막 담당자 (문의: 박정호, 신승윤)  
새가족팀 - 새가족들을 섬겨주실 분 (문의: 박사론)

## 환송

안혜진(귀국)

## 금요찬양 기도회

매월 첫주 금요일 7:30-9:00

청년부와 장년부가 연합한 찬양 및 기도집회  
해당주 청년부 금요기도모임은 통합하여 운영

## PSALM

##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제 50권 35호

SEP 18  
2022



# 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지도장로

김상범  
김종환

cptksb3@gmail.com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새가족 팀장

오은비  
박사론

eunbe.or@gmail.com  
Sp9316@gmail.com

## 양육과정안내

##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